

서울화력발전소(전 당인리발전소) 이전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08. 1. 18 .

발 의 자 : 채재선 위원 외1인

1. 주 문

산업자원부는 서울화력발전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고, 이곳에 “2020 마포구 도시발전 종합관리계획” 및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연계된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서울시 서북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 제안이유

- 가. 서울화력발전소는 1930년 11월 준공 이후 지난 77년간 적지 않은 매연과 분진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에게 수십 년 간 고통을 안겨 주었고, 주민의 삶의 질 훼손으로 지역주민들이 끊임없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시설임.
- 나. 한강수변, 편리한 접근성 및 양화진 성지 등 충분한 관광인프라가 있음에도 이 시설로 인한 개발지연으로 서울 서북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인근지역 주거환경 또한 열악하여 주민들의 분노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음
- 다. 이러한 이유로 수십 년 간 관계기관에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제성과 실효성이 없는 ‘서울LNG 복합화력 대체건설(지하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라. 산업자원부에서는 서울지역 비상 전원공급 역할 등의 사유를 들어 이전을 거부하고 있으나 인천영흥지구 화력발전소 등 수도권 인근 지역에 건설 중인 발전소 설비를 증가하면 대체 확보가 가능하며, 용산 미8군 기지도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서울화력발전소 존치 및 발전기능 유용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우리 마포구 의회에서는 40만 구민의 뜻을 모아 '서울LNG복합화력 대체건설(지하화)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서울화력발전소를 이전 또는 폐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3. 발송처

국회,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서울시, 서울특별시마포구, 한국전력, 한국중부발전(주), 서울화력발전소.

첨 부 : 서울화력발전소(전 당인리발전소) 이전 촉구 건의안

서울화력발전소(전 당인리발전소) 이전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1번지에 소재한 서울화력발전소는 1930년 11월 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현 규모 : 118,924m²)로 현재 여의도와 이촌동 등 5만여 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정부 종합청사 등 국가 주요기관에 비상 전력 공급 업무를 맡고 있으나, 지난 77년간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의 삶의 질 훼손으로 지역주민들이 끊임없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시설이다.

지금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하지만 무연탄이 주 원료이던 1970년대까지 적지않은 매연과 분진으로 수십년 동안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 왔고, 서울 도심지 부적격 시설 존치로 인해 한강변 경관저해 및 지역개발 지연으로 인근 지역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입지적으로도 마포구 중앙에 위치하여 우리구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수십년 간 관계기관에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산업자원부에서는 국가의 주요기간시설이라는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한국중부발전(주)은 최근 서울화력발전소에 가동 중인 발전설비 4, 5호기(총 387.5MW)를 2012년까지 폐쇄하고, 지하 30m지점에 1,000MW (500MW급 2기) 규모의 대체 발전기를 설치(지상부는 공원조성)하는 “서울LNG복합화력 대체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불안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사업으로 경제성 및 실효성 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지역난방 열 공급과 서울지역의 유일한 비상 전원 공급 역할 및 수도권 전력계통 전압안정 유지를 위하여 본 발전소를 이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서울화력 발전설비가 노후화되어 폐쇄 예정에 있고, 대체 발전설비 준공 시에는 막대한 비용이 추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서울화력발전소는 서울시 하·동절기의 급격한 전력 변화에 따른 수급조절용 발전소로 도심지 핵심 발전설비가 아니어서 인천 영흥지구 화력발전소 등 수도권 인근지역에 건설 중인 발전소 발전 설비를 증강하면 화력발전 대체용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용산 미8군 전용 전기발전소 역할도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서울화력발전소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서울화력발전소 발전기능 유용성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40만 마포구민을 대표하여 마포구의회에서는 “서울LNG 복합화력 대체 건설사업”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건 의 사 항

산업자원부는 서울화력발전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고, 이곳에 “2020 마포구 도시발전 종합관리계획” 및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연계된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서울시 서북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08년 1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